

‘圖書館法’中 ‘公共圖書館의 目的’에 대한 批判的 考察

崔 成 眞*

차 례

- | | |
|----------------------------------|-------------------|
| 1. 序 論 | ㄱ. 레크리에이션 |
| 2. “圖書館法”中 “公共圖書館의 目的”
設定의 背景 | ㄷ. 調査 |
| 3. 地域社會의 要求에 기초한 公共圖
書館의 目的 | ㄹ. 研究 |
| 4. 敎養 | 4. 公共圖書館 目的의 優先順位 |
| | 5. 結 論 |

1. 序 論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당면한 문제의一端을 보여주는 최근 문헌으로 제12회 전국도서관대회(1973.10.4~6, 전남 광주시)에서 채택된 對政府 建議文이 있다. 이 속에서 대회참석자들은 “정체상태에 있는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계획」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하였다. 이것은 제10회 대회 이래 세번째 되풀이된 꼭같은 내용의 호소였다. 한 문헌을 더 든다면 197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통계를 가리킬 수 있다. 이 통계를 보면 동관의 1972년도 전문직사서 수는 46명이었는데 1973년에는 3명이 준 43명이 되었고, 장서증가는 1972년도의 증가 책 수 28,399권에서 1973년도에는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702권으로 줄었고 이 이용자 수도 1972년도의 461,793명에서 1973년도에는 66,073명(14%)이 줄어, 395,720명이 되었다¹⁾.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대체로 국립중앙도서

*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 副教授

1) 한국도서관통계, 1973, p. 7.

관의 경우처럼, “沈滯, 無氣力”하여 “歷史的 罪意識을 痛感하지 않으면 안되는”²⁾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의 호응없는 존재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말할것도 없이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를 支持를 잃었거나 잃어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회기관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사회의 지지를 잃는다는 것은 최악의 문제이다³⁾. 그러한 문제를 지닌 사회기관은 자체의 社會的 效用度를 재평가하여 지지를 회복하든지, 아니면 없어지는 길밖에 없다. 일일이 정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문제가 많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 목적에 대한 검토(진단과 처방)가 당연히 해결노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도서관 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설계나 실무분야의 원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다 중요하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목적 설정 다음에 오는 문제일 것이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定義는 시급을 요하는 도서관계의 과제이다. 문제 정의를 위해서는 현행 기능과 업무를 평가해야 하는데 그 평가를 위해서도 우선 올바른 목적의 존재가 필요하다⁴⁾. 이렇듯 시급을 요하는 필요에 따라 우리 시대의 諸 現實的 要求와 各 要求의 우선 순위에 기초한, 時流에 맞는 공공도서관 목적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중의 공공도서관 목적⁵⁾을 분석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에 수정을 주장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도서관법중 공공도서관 목적 부분(제3조 2항)의 개정을 결과하고, 더 나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올바른 목적아래 지역사회에

- 2) 李承周, “公共圖書館의 回顧와 展望”, 도형월보, XIV(1973. 12), 2에서 인용.
- 3) Vern M. Pings, “The Library as a Social Agency, Response to Social Chang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XXXI (May, 1970), 174—183.
- 4) Paul Wasserman, “Methodology for the Formulation of Objectives in Public Libraries,” in Reader in American Library Administration, ed. by Paul Wasserman and Mary Lee Purdy (Washington: NCR, 1968), pp. 141—145; and Ralph Blasingame, “Libraries in a Changing Society,” Library Journal, 97 (May 1, 1972), 1667—671.
- 5) 圖書館法(法律 第124號, 1963年 10月 28日 公布) 第3條 2項.

밀착된 “한국적” 공공도서관 봉사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음 두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ㄱ. 우리나라 도서관법중 공공도서관 목적의 설정에 있어 본이 된 1940~50년대의 미국 공공도서관 목적(이에 대해서는 뒤에 상술한다)이 최근 그나라 圖書館史 研究者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목적이 1850년대 미국 공공도서관 창시자들의 의도를 전적으로 잘못 해석한데서 나온 것이므로 공공도서관의 봉사 목표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사회적 共感을 넓혀 가고 있다⁶⁾. 그러므로 우리가 옳은 본을 사용하였는지(따라서 옳은 것을 가졌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제의 修正 論을 고찰하는 한편 종래의 미국 공공도서관 목적이 출현한 사회적 배경과 우리의 그것을 비교 검토하였다.

ㄴ. 도서관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기관은 그 목적이 시대(사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므로⁷⁾ 우리 시대가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봉사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현 법정 목적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를 밝히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 수정을 주장할 근거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표본 도서관(서울시립종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동대문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출통계에 나타난 자료의 부문별(오락서, 교양도서, 학술서적 등)이용 추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질문지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 및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효용성에 관한 견해를 알아보았고, 최근 텔레비전이 오락·교양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용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이것이 공공도서관의 같은 분야 프로그램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 텔레비전 방송국(서울시내 국립중앙방송국, 동양방송국, 문화방송국)의

6) Michael Harris, "The Purpose of the American Public Library: A Revisionist Interpretation of History," Library Journal, 98 (September 15, 1973), 2509—514.

7) Jesse H. Shera,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ew York: Wiley, 1972), Chapter 5, The Role of the Library in the Social Process, pp. 135—162.

관련부문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위의 보충자료로서 출판연감에 나타난 부문별 도서출판 부수 증가 추세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였다. 질문지에 의한 자료 수집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3,4학년 학생들이 담당하여 각자의 거주지 주변에서, 직접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ㄱ. 질문지에 의한 자료 수집은 서울시내에서만 행하였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인 중 소도시와 농 어촌을 포함한 전 국민의 이상적 표본이 되지 못하였다.

ㄴ. 질문지에 의한 자료 수집에 있어서 조사를 담당한 학생들이 질문지를 내놓기 전에 먼저, 공공도서관 책을 빌린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그렇다는 사람에게 한해 응답을 부탁하였으므로, 대다수 “잠재적 이용자”의 소리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질문지를 다 취합하고 분석해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30세 이상의 연령층,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 나타나 바람직한 주민 구성 비율의 표본이 되지 못하였음을 알았다.

ㄷ. 도서관은 다른 정보전달 기관의 영향 영역 변동에 따라 그 프로그램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있다⁸⁾.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텔레비전의 경우를 비교적 세밀하게 검토하고,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등 여타 기관의 영향에 대해서는 실질적 검토를 가하지 않았다.

2. 圖書館法中 公共圖書館 目的 設定의 背景

근 70년전에 애국적, 민족 계몽적 동기에서 처음 나타난 우리나라 근대도서관은 수년 후에 닥쳐온 한일합방으로 36년간을 일제의 한 식민통

8) 崔成眞, “圖書館奉仕의 變化를 결정하는 要因에 대한 考察,” 圖書館學 第3輯(1973), 83—102.

9)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pp. 141—49.

치 도구로 盜用당했다가 1945년 8.15 해방 후에야 다시 민족 문화기관으로 복원되었다. 그러나 당초의 그 필요와 직결된 진실한 도서관 목표나, 개관 수삼일만에, 불과 1만여권 장서 중에서 수천권이 대출돼나가는 성황¹⁰⁾은 끝내 복원되지 않았다. 20세기 초, 점증하는 외국 세력의 침략 위협에 대비하고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 無知 속에 태평하기만한 국민을 깨우려고 도서관을 세우고 책을 모으던 독지가들에게는 진실하고 절박한 목표가 있었고, 국민은 또 그러한 목표에 쉽게 공감하고 환호하였다. 그러나 8.15해방에서 6.25까지의 혼란, 전쟁 3년간의 파괴, 휴전 직후의 허탈과 계획 不在 등 일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공도서관은 뚜렷한 목표를 세울 수 없었고,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니 국민의 공감이나 지지가 있을 리도 없었다. 사실 이 시기는 공공도서관이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옳을까를 생각할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 격동기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냉정을 되찾고 차분히 對社會 봉사할 생각하며 목적 설정을 운위하기까지는 휴전후에도 수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휴전후 별일없이 수년이 지나자 사회 각 분야에서는 전제 복구 사업이 시작되었고 도서관제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시기는 모든 것을 잣대미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인습적 폐단같은 것을 일소하는데 더없는 기회이므로 반세기간 誤用되면서 생긴 갖가지 문제를 지닌 우리 도서관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好機를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미국 “피바디사범대학 교육사절단”이 내한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교육 전반의 재건사업 주도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불운하게도 호기는 일실되었다. 여기서 저자는 당시 이 사절단의 도서관 전문요원으로서 활동하며 한국 도서관 재건 및 근대화에 공헌한 스와이거, 버제스, 크로스링 씨의 업적¹¹⁾을 과소평가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이 공공도서관 목적

10) *Ibid.*, p. 148.

11) 이들은 대체로 1955—63년 기간중 “피바디사범대학 교육사절단”의 도서관 분야 전문 요원으로 활동하며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도서관학 과정을 설치하고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미국내의 여러 도서관학교에

설정에 관한 한 “미국용” 기성품을 한국에 이식한, 또는 적어도 우리나라 도서관인들이 그러한 과오를 저지를 계거나 분위기 조성을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 불행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재건이든 창건이든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일의 목적 설정이 우선되고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기관인 경우 그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방식, 시대적 필요와 그 우선 순위등에 기초하여 목적이 설정됨이 원칙이다¹²⁾. 이러한 일은 정리 기술이나 도서관관리원칙 등과는 달라 잠시 체류하다가 떠날 외국인인 수행하기엔 무리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가설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 미국인들은 한국 고유의 공공도서관 목적 설정의 방향모색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미국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일반적 목적처럼 말했고, 또 후에 도서관법 제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해 그들에게서 배운 학생들은 그것이 한국 공공도서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받아 들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¹³⁾.

1963년 館界 待望의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 제3조 2항에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이 명기되었다. 이 목적이 옳건 그르건 이후 모든 공공도서관 활동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실천되고, 평가되도록 법적으로 제한된 것이다. 도서관법 제정에 있어서, 미국 某州의

유학을 알선하여 당시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젊은 지도급 인사들에게 근대도서관의 원칙과 방법을 습득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들의 영향으로 한국도서관 전반에 급속히 “미국식”이 도입되었으며 종래 보존위주의 도서관관리로부터 이용위주의 도서관 봉사활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이 직접 도서관 실무에 참견하거나 도서관법 제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이들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주역을 담당했으므로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 12) E.C. Banifield, “Needed: A Public Purpose,” in The Public Library and the City, ed. by R.W. Conant (Cambridge, Mass.: M.I.T. Press, 1965), pp. 103—113.
- 13)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없으나 1940—50년대 미국공공도서관 목적과 대동소이한 목적이 포함된 도서관법이 제정된지 10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이 부분을 비판한 문헌이 하나도 없음은 역으로 말하면 긍정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도서관법과 일본의 도서관법이 주로 참고되었다고 한다¹⁴⁾. 참고 자료로 사용된 그 미국 주도서관법을 추적할 길이 없으나¹⁵⁾ 공공도서관 목적에 관한한, 당시 미국에서는 1943년 미국도서관협회가 마련한 “전후 공공도서관 기준”¹⁶⁾ 속에 정의된 목적과 1950년의 “리이報告書”¹⁷⁾ 속에 정의된 목적이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일반이 받아들이고 있었으므로¹⁸⁾ 그 주도서관법 목적도 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 짐작된다. 이 두 문헌 속에 정의된 공공도서관 목적은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교육

인포오메이션

예술 감상

조사 연구

레크리에이션.

일본 도서관법 속에 정의된 목적은 도서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교양

조사

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¹⁹⁾고 하였다.

14) 도서관법 기초에 참가했던 박희영씨의 말.

15) 도서관법 기초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이를 기억하는 분이 없다.

16) Post-War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 Prepared by the Committee on Post-War Planning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arlton Bruns Joeckel, Chairma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3)

17) Robert D. Leigh, The Public Libraries; The General Report of the Public Library Inqui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0)

18) Harris, op. cit., p.2509. (These basic assumption, it is generally agreed, are still widely accepted by public librarians whose liberal and idealistic commitment to the public library as a “people’s university” has never faltered from that day to now.)

19) 日本圖書館法(昭和 25年 4月 30日, 法律 第 118號) 제2조 1항.

한편 우리나라 도서관법 속에 정의된 목적을 보면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의

教養과

調査

研究

레크리에이션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우리나라의 것과 일본의 것은 前者에 부분적으로 표현상 잘못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같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서관법중 공공도서관 목적이 일본 도서관법중 해당 부분의 복사관이라 하지 않고 미국도서관의 그것이라고 하는 저자의 논거는 일본의 것이 또한 전술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미국의 공공도서관 목적을 그대로 이식한 것이기 때문이다²¹⁾.

이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목적을, 위에 간추려 열거한 미국의 목적과 비교해보면 양자중 조사, 연구, 레크리에이션은 공통이고 우리의 교양과 미국의 교육, 인포오메이션, 예술 감상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헤인즈가 말한대로 교양을 말하는 것

20) 우리 도서관법에는 “教養과 調査 研究 레크리에이션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공중에게 자료를 이용케하는 도서관 기능과 그러한 도서관기능을 수단으로 하여 공중의 교양, 조사, 연구, 레크리에이션 目的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 도서관 목적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했으므로, 저자는 이 경우 일본의 표현이 옳다고 믿는다.

21)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다음 두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1970-71年度 慶應義塾大學 文學部 圖書館情報學科 要覽 8페이지에 “일본에서는 [도서관학] 未開拓分野이므로 [本學科] 設立에 있어서 미국 도서관협회로부터 技術的 援助를 받았고, 教授團은 海外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였으며, 初代 主任에는 와싱턴 大學의 로버트·엘·기틀러 교수가 부임하였다”고 하여 이 학과가 설립된 1951년(도서관법 공포는 1950년)까지 일본에는 아직 獨自의 근대도서관 철학의 定立이 없었음을 시인하였고, 둘째, 일본 도서관법 중의 목적 정의가 그보다 먼저 있는 미국의 그것과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마찬가지로 같다.

이므로²²⁾ 위에서 다른 것으로 되어있는 우리 교양과 미국의 교육은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다. 또 우리 것에는 없는 인포메이션과 예술 감상이 미국의 목적 속에는 있는데, 인포메이션은 조사, 예술 감상은 레크리에이션 개념 속에 각각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때 실제에 있어 두 목적 사이에는 내용상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우연의 일치라 아니라면 우리나라 도서관법중 공공도서관 목적 부분은 미국 공공도서관의 그것을 수정없이 (내용상) 이식한 것이라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3. 地域社會의 要求에 기초한 公共圖書館의 目的

다른 사회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도 그 사회의 어떤 요구에 따라 생겨나서 그 요구가 존속하는 날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는 도서관이 그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킨다는 조건하에서만 성립될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²³⁾. 그러므로 사회적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적당한 방법 채택으로 요구 충족의 기능이 약해지면 어떤 변명으로도 도서관의 존재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처럼 도서관의 존재와 발전이, 그것이 나온 지역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역사는, 초기 사립도서관의 예외를 빼고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도서관이 제구실을 하려면 지역 사회의 요구가 그 목적으로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도서관법중의 공공도서관 목적은 우리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공공도서관 목적을 이식하여, 말하자면 미

22) Helen E. Haines, Living with Books: The Art of Book Selection (2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0), p. 15. (The province and purpose of public library is to provide for every person the education obtainable through reading. This does not mean education in any narrow or formalized sense but, rather, the culture of mind and spirit that books can diffuse in life.)

23) 崔成眞, op. cit.

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제대로 만든 목적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타당도가 낮아지는 법인데, 남의 것을 갖다 쓰고, 게다가 낡아가지한 우리의 공공도서관 목적은 일차 우리 사회의 요구에 비추어 타당도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현행 목적을 전면 부정하고 지역사회 요구 조사를 거쳐 새로운 代案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그러한 방법보다 현행 목적—교양, 조사, 연구, 레크리에이션—의 내용을 축조 검토하여 지역사회 요구와의 합치 여부를 가리는 일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 教養

오늘날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책을 읽음으로써 교양과 지식을 얻어 自己 向上을 도모하는 시설이라고 보는 생각(People's university concept²⁴⁾)은 1850년대에 미국 보스턴공공도서관 창설을 주도한 조오지·틱크너(George Ticknor)의 발상에 이어진다²⁵⁾.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며, 모든 지역사회 주민에게 무료로 소장 도서를 대출하는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역설한 틱크너의 논리적 기초는 (1) 사람은 누구나 완전해질 수 있으며, (2) 그 最適手段은 책이며, (3) 책은 비싸서 보통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가정이었다²⁶⁾. 이 가정은 미국의 이상주의적 인도주의적 개혁사상과 일치되어, 그 후 오랫동안 미국 공공도서관 존재의 기저를 이루어 왔다. 틱크너가 생각한 독서를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은, 당시 유럽으로부터 물 밀듯 흘러들어오는 많은 “무식하고 난폭한” 이민 집단과, 보통선거에 의해 성립되는 미국의 정치권력 구조에 대한 이들의 이해 부족 및 불신으로 말미암은 新共和體制의 위기가 그

24) Alvin Johnson, The Public Library—A People's University (New York: American Association for Adult Education, 1938)

25) Harris, op. cit.

26) Robert Ellis Lee, Continuing Education for Adults through the American Public Library, 1833—1964;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6), pp. 5—6.

배경을 이루어, 이들에게 책을 읽혀, 교양있고 참정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으로 만들자는 목적의 공공도서관을 탄생케 한 것이다.²⁷⁾ 한마디로 “이러한 無知의 쇄도를 제거하는 수단”(remedy for this influx of ignorance)²⁸⁾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 틱크너의 신념이었다. 이러한 교양 위주의 틱크너主義는 당시는 물론 오늘 날까지 미국 공공도서관 철학의 주류를 이루어 왔고, 또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우리나라 현대 공공도서관에서도 不問의 원칙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틱크너主義가 나타난지 한 세기가 넘은 오늘, 미국의 사회적 여건은 변모하였다. 무식한 이민의 流入 문제는 그때처럼 심각하지 않으며, 보통 가정에서 사 볼 수 없을만큼 책 값이 비싸지도 않으며, 학교교육이 일반화되었으며, 전파·정기간행문·필름등 책외의 지식전달 매체가 개발 보급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양을 얻으려면 도서관 밖에 갈 곳이 없다고 하던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오늘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얼마든지 있어, 꼭 도서관에 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미 1939년에 셔어만(clarence sherman)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글을 읽을 줄 아는 모든 사람을 도서관으로 부르려는 무리한 노력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⁹⁾. 처음으로 出力을 통하여 공공도서관 봉사의 사회적 효용도를 측정해 본 사서들은 공공도서관 이용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많은 비판적 사실들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공공도서관 봉사 안에 몇가지 새로운 기능과 봉사를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었다. 이들 새로운 기능에는 참고·정보봉사, 어린이에 대한 봉사, 독서지도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봉사도 기대한 이용의 증대나 지역사회로부터

27) David B. Tyack, George Ticknor and the Boston Brahmi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28) *Ibid.*, p. 233에서 인용.

29) Clarence Sherman, “The Definition of Library Objectives,” in Current Issues in Library Administration, ed. by Carlton Bruns Joecke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9), pp. 26—27.

의제정지원의 증대를 결과하지 못하였다³⁰⁾. 결국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그렇게 편리하게 제공되는 각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 봉사의 受惠者가 그렇게 소수라는 사실에 실망하고, 공공도서관 봉사를 통한 이른바 “大衆教養提高論(uplift theory)이 실현성 없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³¹⁾. 해리스의 견해³²⁾로는 오늘 날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도서관 봉사를 별로 고맙게 여기지 않으므로 점차 그들의 주의를 대중으로부터 빼어 당초의이용자인 소수 엘리트에의 봉사로 돌리고 있으며, 단지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를 잃을까 두려워서 지금도 지역사회 전원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修辭的 煙幕을 치고 있다는 소위 “목적 엄폐론”을 폈다. 이렇게 미국 공공도서관의 金科玉條였던 教養目的이 퇴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최선으로 믿고 받아들인 우리의 입장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본래 우리나라 근대(공공)도서관 창시자들의 목적은 개화, 즉 우매한 국민에게 서구 문물을 가르쳐 당시 우리나라를 헛보던 외세의 동향을 바로 판단케 하여 효과적으로 독립을 보존(후에는 회복)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이들 창시자들의 사상을 승계한다는 뜻에서는, 이민에 대한 참정 자격 부여와 그들의 난폭성 완화로 동기된 미국 공공도서관 목적을 무비판 수입한 일이 잘못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시대가 변했으니 창시 사상을 그대로 승계할 필요가 없다는 異論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가설이기는 하지만 도서관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안에 남북을 막론하고 수많은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20세기 초의 상황이 완전 해소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후일에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지만, 우선 여기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

30) Bernard Berelson, The Library's Publ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9)

31) Dorothy Canfield Fisher, "The Stronghold of Freedom," in Living Ideas in America, ed. by Steele Commager (New York: Harper, 1951)

32) Harris, op. cit.

관이 정말 국민의 교양을 높일 수 있는지, 또 공공도서관에 대해 그러한 사회적 기대가 있는지 기대가 있다면 그 강도는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찰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 자료를 빌려서 읽음으로 자신의 교양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주 도서관에 가는 사람일 것이며, 따라서 거주지 근처의 공공도서관 이름이나 위치는 잘 기억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질문지 응답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러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매우 적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공공도서관 이용빈도

문	항	이용빈도	수	%
귀하가 어느 것이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때로부터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용한	1 주간	10	6.3
		2 주간	9	5.6
		1 개월	9	5.6
		2 개월	12	7.5
		3 개월	9	5.6
		6 개월	15	9.4
		1 년간	28	17.5
		5 년간	41	25.0
		5 년이상	27	17.5
		계	160	100.0

표1은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다는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용 빈도별 분포상태이다. 여기서 공공도서관에 가본지 반년이 넘었다는 96명(전체 응답자의 60%)은 실제 이용자라기 보다 잠재적 이용자이고 아직 한달이 채 안되었다는 28명(17.5%)만이 실제 이용자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표 2에서도 유사한 사실을 발견한다. 서울시내 거주자로서 넷밖에 없는 시내 공공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을 하나도

<표 2> 공공도서관에 대한 일반의 관심

문항	기억하는 도서관 수	수	%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이름과 그 대략위치를 기억하는데로 적어주십시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62	38.8
	하나를 기억하는 사람	33	20.1
	둘을 기억하는 사람	35	22.4
	셋을 기억하는 사람	22	13.7
	넷을 기억하는 사람	8	5.0
	계	160	100.0

모르거나 하나를 겨우 아는 95명(전체 응답자의 58.9%)을 실제 이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공공도서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셋이나, 넷 다 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이용자는 셋이상의 공공도서관 이름과 위치를 즉각 말할 수 있었던 고작 30명(18.7%)뿐이 아닐까? 즉, 도서관 이용자라고 자처한 160명 중에서 실제 이용자는 20%도 안되는 소수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수마저 다 교양독서를 목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중에는 오락서, 참고서, 학술서를 읽으러 가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교양독서 집단의 비율은 다시 작아질 것이다. 이 비율을, 공공도서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多數를 포함한 全地域社會員 속의 비율로 보면 다시 작아져, 인식하기도 어려운 소집단이 되어버릴 것이 틀림없다.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아직 “대중”교양을 위한 전당으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같은 대중의 무관심이 그 실패를 입증한다고 본다. (또 성공한다면 600만 서울 인구의 교양독서를 4개 공공도서관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소수 사람들이 교양독서를 읽으려고 공공도서관을 찾는다는 사실이 곧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양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자신의 교양과 인격 도야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마 없다고 해서 과연 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교양자료를 얻고 있는 것일까?

표 3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밖에서 교양자료를 구독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도 신문 잡

<표 3> 主要敎養資料源

문항	교양자료원	수	%
귀하는 자신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 주로 어떤일을 합니까?	라디오·텔레비전 교양프로 시청	37	23.1
	신문 구독	97	60.6
	교양잡지 구독	102	63.8
	도서관 교양도서 대출(열람)	49	30.6
	강연회등 참석	48	30.0
	기 타	20	12.5

<표 4> 敎養圖書求得方法

문항	구독방법	수	%
귀하는 어떤 교양도서를 읽고 싶을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그책을 구합니까?	서점에서 산다	82	48.8
	공공도서관에서 빌린다	16	9.5
	친구에게서 빌린다	22	13.1
	학교나 직장도서관등 공공도서관 아닌 도서관에서 빌린다	47	28.0
	위의 방법들이 아닌 방법으로 구한다	1	0.6
	계	168	100.0

지 교양도서를 사서 읽는 일이 敎養資料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표 3 참조)은 놀라운 일이다. “도서관 교양도서 대출”은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라디오 텔레비전 교양프로 시청”, “강연회 등 참석”과 비슷한 비율의 교양자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람들은 왜 거의 무료인³³⁾ 공공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돈을 들여서

33) 현재 서울 시내 공공도서관에서는 1회 입관에 대해 10원씩 입관료를 받는다. 입관후의 열람도서 권수에는 제한이 없다.

서점에서 잡지나 책을 사는 것일까? 도서관 책을 빌려 읽는 일이 불편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부록 6 참조)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많은 사람에게 책값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적어도 이전에 비해)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약 반수는 어떤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보통 서점에서 산다고 했다. 현대인들이 공공도서관 밖의 교양도서를 이용하여 자기의 교양을 도모한다는 증거는 공공도서관의 교양부문 자료 열람 통계가 기록없는 선의 그라프인데 대해, 교양도서 발행 부수는 급상하는 선의 그라프로 나타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표 5>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교양자료 열람통계

구분 연도	열람책수	상주인구 ¹⁾	1인당열람책수 ²⁾	1965년을 기준한 인구 대비열람증가율(배) ³⁾
1965	17,360	3,470,880	0.00500	1
1966	16,252	3,805,261	0.00424	0.848
1967	21,332	3,969,218	0.00537	1.074
1968	22,950	4,334,973	0.00529	1.058
1969	29,181	4,776,928	0.00610	1.220
1970	31,271	5,536,377	0.00564	1.128

※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유별열람통계(부록 1) 및 서울시내 인구추이 통계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

1) 서울통계연보, 1972, p. 13.

2) 열람책수를 그해 인구로 나눈 것임.

3) 그해 1인당 열람책수를 기준년인 1965년도 1인당 열람책수로 나눈 것임.

표 5를 보면,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에서 열람된 교양도서 수가 1965년의 17,360권에서 5년 후인 1970년에는 31,271권으로 늘어나 약 1.8배의 절대 증가로 나타나나, 동 기간중의 인구 증가를 감안한 실질적 열람증가율은 1,128배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의 증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중의 교양도서 출판 상황을 보면 1965년에 비해 1970

<표 6> 교양도서 발행부수(초·중판 포함)통계

연도	철학		역사	
	수	1965년 기준증가율	수	1965년 기준증가율
1965	63,100	—	75,500	—
1966	87,700	1.4배	131,450	1.7
1967	56,400	0.9"	168,200	2.2"
1968	80,082	1.3"	123,955	1.6"
1969	128,200	2.0"	91,510	1.2"
1970	186,800	3.0"	117,353	1.5"
1971	211,980	3.2"	352,485	4.7"

※ 韓國出版年鑑, 1966—72.

년에는 4.7배나 늘어난 부수를 발행하여, 공공도서관에서의 교양도서 열람이 정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사람들이 점점 더 공공도서관 밖에서 교양도서를 읽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존 통계자료의 제한으로 표 5의 교양자료로 철학과 종교관계 서적을 포함시켰고, 표 6에서는 철학과 역사관계 서적을 교양도서로 간주하였고, 또 발행 부수가 수요와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無理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무난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상술한바와 같이 오늘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원 모두에게 교양을 주는 목적을 성취할 능력이 없음을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원 측에서는 과연 그렇게 막중한 對地域社會 공헌을 공공도서관에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표 7에서 보는데로 시민의 기대는, 공공도서관이 교양자료로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74명, 44.3%) 지역사회 정보센터(86명, 51.5%) 및 학문 추구의 전당(86명, 51.5%)으로 구실해 주기를 바라는 정도는 아니다. 공공도서관 봉사내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뒤 에 상술하겠으나 오늘의 제한된 공공도서관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할 때

<표 7> 이용자가 바라는 공공도서관 자료

문항	도서관 자료	수	%
귀하가 과거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읽은책 또는 앞으로 빌려읽고 싶은 책은?	소설, 전기등 재미로 읽는 책	27	16.1
	사상서, 종교서등 교양을 위한책	74	44.3
	어떤 일을 하다 모를일이 생겨날 때 그 해답을 주는 즉 정보를 제공하는 책	86	51.5
	개인적 학문추구를 돕는 책	86	51.5
	기 타	10	6.0

이 비율의 의미를 경시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레크리에이션

일부 미국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 의 한 오락기관으로 보고 “우리의 목적은 공원관리 사무소의 그것과 같다”³⁴⁾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1876년도 미국 연방교육국 보고서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퍼킨스(F.B. Perkins)의 주장 속에 이미 나타나 있다.

“도서관 설립에 있어서 흔히 보는 최초의 과오는 지나치게 무거운 딱딱한 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용이 좋은 책들만 모아 놓고 이것을 읽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도서관 원칙은 지양되어야한다. 한가지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 사람들이 현재 읽고 싶어하는 책—그것이 내용적으로 그리 유익한 것이 아니라도 좋다—을 제공하여 점차 그들의 독서 취미와 습관을 향상시킨다음 본래 도서관이 원하는 책을 읽게하는 것이다. 결국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대부분은 재미있는 읽을 거리를 찾는 청소년들과 휴식을 원하는 피로한 사람들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

퍼킨스는 “대중이 현재 원하는 책”(즉 오락도서)을 “도서관이 나중에

34) Mary Duncan Carter and Wallace John Bonk,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Metuchen, N.J.: Scarecrow, 1969), p.8. (Our purpose here is the same as the Park Department.)

원할 책”(즉 교양서)을 읽게하는 출발점(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후에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공원관리 사무소의 그것과 동일시한 사서들은 오락서 자체를 終點으로 삼은 사실을 유의해야할 것이다. 퍼킨스의 주장을따른 사람들 가운데 후렛처(William I. Fletcher)³⁵⁾가 있다. 그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위치가 산토끼 고기를 요리하려는 한 요리사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물론 산토끼 고기 요리의 제1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산토끼를 잡는것”(First catch your hare)이다. 즉,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을 읽혀 교양을 쌓게 하려면, 우선 그들을 도서관 안으로 유인해 들여야 한다. 후렛처의 생각으로는 대중(“middling classes”)을 도서관에 유인하는 최상의 방법은 대중자료(popular works), 그 중에서도 특히 소설류를 많이 수집하여 서가를 채우는 것이었다. 공공도서관 장서에 통속소설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19세기 말경 미국 도서관계에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³⁶⁾. 어떤 이론으로도 공공도서관에 있는 소설류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여전히, 사서가 “산토끼”를 잡기 위한 “당근”의 명목으로 소설류 수집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명목이, 정말로 토끼를 잡은 후에야 정당화된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당근만 없애고 토끼를 잡지 못한다면 당근에 대한 투자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하여 논쟁의 초점은, 일단 통속소설에 끌리어 도서관으로 들어온 대중이 그것을 읽는 동안에 점점 독서 취미와 습관이 개선되어 마침내 도서관에서 읽히려는 교양도서를 읽게될 것인가 여부이었다. 이에 대해 윈저(Justin Winsor)는 긍정론을 폈다³⁷⁾. 공공도서관이, 대중이 원하는 오락서를 제공하여 우선 그들이 도서관을 드

35) George S. Bobinski, “William Isaac Fletcher, An Early American Library Leader,” Journal of Library History, V(1970), 101—108.

36) Esther Jane Carrier, Fiction in Public Libraries, 1876—1900 (New York: Scarcrow, 1965)

37) Justin Winsor, “Free Libraries and Readers,” Library Journal, I (1876), 63—67.

나드는 습관을 길러주고, 다음 단계로 강권이 아니라, 부지중에 유도되는 방식으로 그들의 독서 취미를 향상시켜가면 “해로울 지도 모르는 책으로부터 해롭지도 유익하지도 않은 책으로, 이것이 다시 유익한 책으로, 마침내 古典類로” 그들의 주의가 上向移動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가설은 미국 도서관사에서 차지하는 원저의 개인적 비증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논급할 이른바 “無害한 娛樂源論”(a harmless source of recreation)³⁸⁾과 더불어 오랫동안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오락서를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다. 무해한 오락원론이라 함은 아무리 내용으로 보아 야로울 것이 없는 소설이라도 그것을 읽는 편이 다른 곳에서 부도덕한 인간육구를 채우는 종류의 나쁜 해위를 하면서 여가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린(Samuel S. Green) 같은 이는 공공도서관의 소설을 “사람들에게 무해한 오락원을 제공함으로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선한 도구”라고 생각하였다. 통칭 “술이나 책이나, (‘Beer vs. Books’)”라고 命題된 이 논쟁에서 클라크(J. F. Clarke)는 공공도서관의 오락서 제공은 보스턴市 當局이 시민에게 공원이나 음악당을 마련해 주는 것과 똑같은 이 “유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오락서, 공원, 음악당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하고 행동을 품위있게 해주며…… 그들을 만족하고, 명랑하고, 즐겁게 해주며……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해주기 때문이다”³⁹⁾. 이 두 가설, 즉 원저의 독서 취미 향상론과 무해한 오락원론은 사실상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오락서 유지를 받쳐온 두 支柱이었다. 그런데 전자의 근거는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의 독서 취향은 통속소설에서 이른바 유익한 도서(교양서)로 높아진다는 증거가 박약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反論의 근거로서 1920~30년대의 미국 공공도서

38) Samuel S. Green, “Personal Relations between Librarians and Readers,” Library Journal, I (1876), 80.

39) Library Journal, IV (1879), 356.

관 대출통계 분석결과를 든다. 이 기간중에 대출된 공공도서관 자료의 70~80%는 소설이 차지하여⁴⁰⁾ 소설독자가 점차 교양서 독자로 이행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오직 소설독자는 늘 소설만 읽는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내의 오락서 존재를 받쳐온 또하나의 지주, 즉, 무해한 오락원論은 오늘의 미국사회(오늘의 한국사회도 마찬가지지만)가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엽의 그것에 비해 많은 새로운 오락수단의 선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간지와 잡지의 보급,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의 도전등 전통적 오락독서를 위축시키는 현대적 요인은 많다⁴¹⁾. 특히 현대 도시인의 생활구조를 토대로 등장한 텔레비전은 “가정에서의 여가를 거의 독점하여 생활에서 독서(특히 오락독서)를 추방⁴²⁾하는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대 공공도서관 내에 계속 오락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근거의 약화로 회의적인 것이 되었다. 다시 주의를 우리나라에 돌리어,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대해 과연 오락서의 공급을 기대하는지, 또는 현재까지 공공도서관이 오락독서를 표방하여 실지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00년대에 우리나라 근대 공공도서관이 처음 생겨날 때 그 목적은 개화에 있었고 오락독서를 통한 지역사회의 안녕 유지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 미국의 원저와 같이 사람들에게 독서 습관을 부쳐주기 위하여 그 미끼로 오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사람도 없었다⁴³⁾. 공공도서관의 오락독서 목적은 미국에서 이식된 것이었다. 그

40) Phillip Kalisch, The Enoch Pratt Free Library: A Social History (Metuchen, N.J.: Scarecrow, 1969), p. 153.

41) 阪本一郎, 新讀書論(東京:講談社, 1959), 第3章 マコミの挑戦, pp. 98-153.

42) Ibid., p. 128.

43) 적어도 현재까지 나타난 문헌 중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목적이 우리 사회의 요구와 관련이 적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다. 질문지 응답에 나타난 경향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공공도서관의 사회오락기관적 기능에 대해 비판적임을 알 수 있
 다.

<표 8> 이용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도서관 자료

문항	도서관 자료	수	%
공공도서관에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책은?	소설, 전기등 재미로 읽는 책	85	54.1
	사상서, 종교서등 교양을 위한책	15	9.6
	어떤 일을 하다 모를 일이 생겨 날 때 그 해답을 주는 즉 정보를 제공하는 책	27	17.2
	개인적 학문추구를 돕는 책	30	19.1

<표 9> 이용자가 바라는 公共圖書館

문항	바라는 공공도서관상	수	%
귀하는 공공도서관이 다 움 중 어느 것이기를 바 라십니까?	재미있는 책을 읽으며 여가를 즐 겁게 보내는 곳	26	15.6
	유익한 책을 읽으며교양을 쌓는곳	82	49.1
	어떤 일을 하다 모를 일이 생겨 날 때 그 해답을 찾으러 가는 곳	94	56.3
	개인적 연구(학교 공부 포함)에 필요한 책을 빌리는 곳	78	46.7
	위의 어느것도 아닌 다른 일울하 는 곳	0	0

표 8에서 보는데로 응답자의 반수이상(54.1%)이 공공도서관에 오락
 서를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 9에 의해서
 재확인된다. 즉, 전응답자의 15.6퍼센트만이 지역사회 오락센터로서
 의 공공도서관 기능을 지지할 뿐이다. 다른 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 사실을 보면 응답자 157명중 4명(2.5%)은 공공도서관을 지역사
 회의 중요한 오락기관으로 보고, 26명(16.5%)은 여러 오락기관 가운데
 하나로 보고 106명(67.5%)은 오락기관이 아니라 보고, 21명(13.5%)은
 잘모르겠다고 한다. 물론 "오락기관"의 涵意이 응답에 잘못 작용할 것

을 우려하여 이 질문에는 “책을 읽으므로 여가를 즐겁게 지내는 것도 오락”이라는 설명을 부가하였다. 위의 세가지 응답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오락서 공급을 바라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소수(표9의 15.6%,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 오락기관으로 보는 위의 19%)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도서관수서원칙⁴⁴⁾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이다. 여기 이들 소수의 현재와 미래의 수요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대체로 시민의 근간 공공도서관 이용도는 下向線을 긋고 있다. 그것은 다음 표10의 數值가 입증한다.

<표 10> 공공도서관 이용추이

문항	이용빈도	수	%
귀하의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는 이전(10년 20년 또는 30년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다	28	17.2
	줄어들었다	87	53.4
	마찬가지다	41	25.1
	잘모르겠다	7	4.3
	계	163	100.0

표 10에서 전용답자의 반수이상(53.4%)이 그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도서관 안의 원인, 밖의 원인 등 여러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텔레비전의 등장이 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것은 “텔레비전을 가진 후에 귀하의 오락독서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2명(57.1%)이 줄었다고 하고 47명(29.2%)이 줄지 않았다고 하고 22명(13.7%)이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으로도 입증된다. 그런데 위에서 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57.1%)에게 다시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은 결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얻는 오락이나 오락서를 통

44) Haines, op. cit., Chapter 1, People and Books, pp,15—28; Carter and Bonk, op. cit., Chapter 1, The Principles of Book Selection for Public Libraries, pp,1—23.

해서 얻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까닭이 4명(4.4%) 텔레비전에 여가를 많이 빼앗기는 까닭이 82명(88.9%), 잘 모르겠다는 답이 6명(6.7%)으로 나타나, 결국 오락독서를 하고싶은 사람들도 텔레비전에 여가를 많이 빼앗겨 독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성공은 최근. 텔레비전 방송국의 연예, 오락부문 편성 추이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부록 2 참조).

<표 11> 서울시내 텔레비전방송국 연예, 오락부문 편성비율 추이

방송국 \ 연도별비율	1970	1971	1972
K.B.S	43.6%	41.7%	34.2%
T.B.C	55.9	57.6	57.7
M.B.C	50.4	62.4	61.5

표 11은 수요에 민감한 상업방송국(T.B.C, M.B.C)들이 연예, 오락부문 편성비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성공과 확대는 제한된 여가의 현대 도시생활 구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독서를 포함한 다른 오락들의 불가피한 위축을 의미한다. 1962년에 2만대에 불과했던 국내 텔레비전 수상기 수가 12년후인 1972년에는 45.3배인 954,542대로 늘어났고, 보급 속도는 계속 加速되고 있다. (부록 5 참조) 멀지않아 그 보급이 포화상태를 이룰 것인바 그때 텔레비전이 오락독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텔레비전은 오락독서 위축에 작용하는 한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요인들, 즉 신문사 주간지와 오락잡지의 보급, 영화, 라디오의 도전등을 다 고려한다면 현재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오락서 공급을 요구하는 그 소수(표9의 15.6%와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 오락기관으로 보는 19%)의 요구마저 앞으로 얼마나 존속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게다가 구미 제국이나 일본 출판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값싼 문고판(Paperbacked edition)이 우리나라에도 보급되기 시작하였으

므로 이로 말미암아 또한 오락서에 대한 공공도서관에의 의존은 더욱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

ㄷ. 調査

초기의 미국 공공도서관이 설정한 주목적이 교육(교양)이었다함은 전술한 바와같다. 당시 “조사”(정보)는 주목적 성취를 돕는 부차적 기능 정도로 고려되었다⁴⁵⁾. 그러나 그후에 닥아온 산업사회는 그 구조와 활동이 복잡해져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이 따라 복잡해지고, 이것이 다시 정보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조사”는 점차 그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1940년대의 “전후 공공도서관 기준”이나 1950년대의 “리이報告書” 속에는 “조사”가 “교육”과 같은 수준의 목적으로 浮上하여 한 세기후 미국 사회의 조사활동이 어떻게 확대되었는가를 말해준다. 1940년대에 이미 “조사”가 공공도서관의 공인된 목적으로서 설정되었지만 아직도 “그 전망이나 장서나 봉사면에 있어서 조사 목적은 새로운 것”⁴⁶⁾이다. 한 도서관 전문지 편집자는 부진한 공공도서관의 조사목적 운용을 개탄하며 “과거는 어쨌든 참다운 현대공공도서관 기능은 지역사회 정보센터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⁴⁷⁾ 전통적 도서관 스타일을 개조하고, 참고 조사봉사를 대폭 강화하라는 말이다. 오직 소수부유한 사람들만이 자기 조사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다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이라도 한 공공도서관 장서에 비길만큼 완벽한 자료를 수집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서점은 아무리 재고 규모가 크더라도 그것은 다 과도적인 것이며 도저히 공공도서관이 장구한

45) Horace G. Wadlin, The Public Library of the City of Boston: A History (Boston: The Trustees of the Library, 1911).

46) Douglas M. Knight and Nourse E. Shepley, ed., Libraries at Large: Tradition, Innovation, & the National Interest (New York: Bowker, 1969), p. 510에서 인용.

47) Editorial, Library Journal, 98(September 15, 1973), 2491. (...while all our past movements may have been valid, the real function of the modern library is local information service.)

생애동안에 조직적으로 수집, 축적한 장서와 같은 모든 주제의 고전과 신간을 갖추어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⁴⁸⁾. 공공도서관이 참고 조사 자료원으로 가지는 장점은 그와 같은 인류의 문화와 지식을 한 곳에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또한 검색하기 쉽게 조직하고, 자료전문가(사서)가 조사행위를 도와준다는 것이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 다른 정보전달기관 가운데 이러한 장점을 지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급증하는 오늘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조사 목적에 시대적 召命意識을 강하게 느껴야 할 것이다. 충실한 참고 조사 봉사료 “지역사회의 사업가, 가정주부, 수집가들(hobbyists)이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게 된다면 그 한가지만으로도 공공도서관의 존재는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⁴⁹⁾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에 국립중앙 도서관에서 참고실을 설치한 것이 공공도서관 참고봉사의 효시이다. 이참고실은 그 후 점증하는 수요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봉사범위를 확대하여오다가 1965년에는 전화(또는 서신) 문의 응답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7월 6일 참고업무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참고업무의 기틀이 잡히게 되었고…… 전화질의 업무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한편 1966년 1월 4일부터는 일반 참고업무와 분리하여 처리하였다…… 1969년도에 본 도서관은 [첨차] 참고 도서관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참고실을 확장하고 참고자료를 확충하였으며 전화 및 서면 질의 업무도 조사연구과에서 열람과로 이관하여 참고업무가 일원화되므로써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⁵⁰⁾ 참고질의의 내용은 대체로 도서관 “자료이용……가정이나 직장에서 [수시 요구되는]단편적 지식이나 상식”⁵¹⁾에 대한 문의이다. “법규 개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지연

48) Haines, *op. cit.*, p. 16.

49) Knight and Shepley, *op. cit.*, p. 509에서 인용.

50) 국립중앙도서관연보, 1970, p. 85에서 인용.

51) *Ibid.*, p. 87에서 인용.

되어 아직 직제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 수요의 압력에 따라 서울시내 3개 공공도서관 및 대부분의 지방 공공도서관에도 이미 참고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봉사도 매우 활발하다.⁵²⁾ 질문지 응답에 나타난 여론도 대체로 위의 인용내용과 일치된다. 서울 시민이 기대하는 공공도서관 장서의 부문별 우선순위 조사에서 참고서적(“어떤 일을 하다가 모를 일이 생겨날 때 그 해답을 주는 책”)이 학술서적과 똑같이 51.5퍼센트로 나타나 제1위인 것을 보아도 (표 7 참조), 공공도서관 참고조사 서어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장서중 참고부문 서적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부문에 비해 소수(17.2%)라는 사실(표 8 참조)도 유용한 근거자료라할 수 있다. 가장 명백한 여론 표시는, 이용자가 바라는 공공도서관” 조사(표 9 참조)에서 볼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어떤 일을 하다가 모를 일이 생겨날 때 그 해답을 찾으러 가는 곳” 즉 사회의 정보(조사) 센터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응답자 167명중 94명(56.3%)으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명시된 공공도서관 목적중에서 전술한 다른 두 항(교양, 레크리에이션)과는 달리, 제3항 “조사” 목적이, 그 설정 동기는 어떻든, 사회의 요구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요구와의 일치와 그 목적 성취를 위한 도서관 노력의 실제 성공과는 별개문제다. 이 분야에 발표된 자료부족으로 상환의 객관적 파악이 불가능하나, 시내 세 공공도서관장의 말과 빈약한 참고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부록 6 제5항 참조), 직제규정 미비로 인한 법적 지원의 결여, 역사日淺으로 인한 담당사서의 경험 미숙등 제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있어서도 미국 도서관문제 심의위원회가 미국 공공도서관사업에 대해 결론지은 것처럼 아직 “조사 목적은 새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지도제장 이승주씨의 말. 이에 관한 공식 數値資料가 없어 객관적 제시의 길이 없다.

르. 研 究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은 장서 제공으로 공중의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 “연구”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를 느낀다. 사전에 나타난 몇가지 정의를 들면 아래와 같다.

가.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알아냄(양주동 감수, 새국어대사전, 신한출판사, 1972)

나.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생각함(한글학회지은, 큰사전, 을유문화사, 1957)

다. 깊이 생각하고 널리 조사하여 진리를 아는 일(신기철, 신용철 편 표준국어사전, 을유문화사, 1960)

라. 어떠한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그 원리와 현상을 깊이 조리있게 깨고 조사하며 생각하는 일(이희승편,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61)

마. Systematic investigation in some branch of science or learning (The Univers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ed. by Henry Cecil Wyld,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57)

바. Critical and exhaustive investigation or experimentation having for its aim the discovery of new facts and their correct interpretation, the revision of accepted conclusions, theories, or laws in the light of newly discovered facts, or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such new or revised conclusions, theories, or laws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bridged, G. & C. Merriam, 1963)

위에서 영어로 된 두 정의(마, 바)는 “연구”에 해당하는 영어단어 “research” 아래의 정의이다. 위의 여섯가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넓게는 지금까지 모르는 사실(진리)을 알아내려고 조사하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가나, 다, 라, 마), 좁게는 현존하는 인류의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실이나 이론이나 법칙 발견을 위한 전문적 조사활동을 말한다.

(바) 연구의 개념이 廣義로, 모르는 사실을 알아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이고, 그 “모르는 사실”이 개인에 따라 아는 사실일 수도, 모르는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교과서를 가지고 어떤 부분의 기초적 지식 체계를 공부하며 無知의 세계를 파고 드는 과정도 마땅히 “연구”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학생의 참고독서나 중·고등학생의 과제 이행도 그러한 과정의 일 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것도 연구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도서관 목적에 있어서 “연구”는 전통적으로 신축성 있는 해석을 받아왔다. 미국 최초의 근대적 공공도서관인 보스턴공공도서관은 그목적이 전문가들의 연구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에버렛(Edward Everett)의 주장⁵³⁾과 당시 보스턴시의 무료 초등교육제도물 완성하는 시설(“Crowning glory of the school system”)이어야 한다는 틱크너의 주장⁵⁴⁾을 다 받아들이고 양자를 조화시켰다. 틱크너의 주장은 보스턴공공도서관이, 무료 초등교육을 마치고 獨學 능력을 얻은 사람들에게 평생계속 공부하는 시설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었고, 고도의 학술 연구 시설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에버렛과 틱크너의 주장은 오늘의 미국 공공서관에도 변함없이 공존하고 있다. 뉴욕이나 로스앤젤스와 같은 대도시의 공공도서관 중앙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서 사회 각 부문 전문가들을 주 대상으로 봉사하는가하면, 그 분관이나 중소 도시의 공공서관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⁵⁵⁾. 미국도서관문제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공공서관 이용증가를 “현 공공서관 봉사에 있어서 몇가지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⁵⁶⁾로 본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동위원회의 권고는, 도서관까지의 거리, 개관 시

53) Wadlin, *op. cit.*, pp. 27—28.

54) Lee, *op. cit.*, pp. 6—10.

55) Knight and Shepley, *op. cit.*, pp. 509—510.

56) *Ibid.*, p. 510. (There are ... quite critical problems in current public library services. One is the heavy burden of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 use of the public library.)

간등의 이유로 아무리 학교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개선한다하더라도 공공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완전히 추방하기는 어려울것이므로 차라리 공공도서관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하라⁵⁷⁾는 것이었다. 이 권고는 우리나라에도 교훈이 된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학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표 12> 1972년도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직업별 이용자 통계

직업별	도서관별	종로도서관 ¹⁾	동대문도서관 ²⁾	계
교육·문필·예술		499	532	1,031 (0.2%)
공무원·군인		1,955	502	2,457 (0.3%)
상업·공업		567	745	1,312 (0.2%)
은행·회사		438	325	763 (0.1%)
중교인		409		409 (0.1%)
대학생		29,591	89,956	119,547 (20.0%)
중고생		254,850	160,458	415,308 (72.2%)
무직		6,780	23,446	30,226 (4.2%)
기타		14,073	1,439	15,512 (2.7%)
계		309,162	277,403	586,565 (100.0%)

1) 종로도서관보, 1973, p.17.

2) 동대문도서관보, 1973, p.23.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 두 공공도서관의 전 이용자 중 학생(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합해 92.2%)을 제외하면 남는것이 7.8퍼센트에 지나지 않아 숫적으로 이용자집단이 형성되지 않을 정도이다. 다수 학생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으나(부록 6, 제10항 참조),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사회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입장으로 볼 때 미국도서관문제심의위원회가 대통령에 대하여 권고한 바와 같이⁵⁸⁾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적절한 방법의 개발이 과제라 할

57) Ibid., p.510. (The desirable objective would be to assist the public library in developing the means to meet the pressure and serve the student better.).

58) U.S.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Libraries, "Report, October 1968," ALA Bulletin, 63(January, 1969), 90. (...people should be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현실(요구)을 무시하고 사회 각 부문 엘리트층을 위한 연구자료를 제공해야 할 절대적 부채를 진적은 없다. 또 이것은 가설이지만 그들의 요구는 대학도서관(초대·교대제외) 98개관⁵⁹⁾, 특수도서관 161개관⁶⁰⁾에서 대체로 충족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의 연구활동 지원에 있어서 주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자료와 봉사 방법도 이들의 요구와 습성에 맞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중에 만난 한 공공도서관장은 서울시내의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기존 4개 공공도서관(이외 시립영등포도서관이 현재 설립 준비중에 있다)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부족하므로, 따로히 약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 중심의 대규모 대학생 전용시설을 설립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두 말할것 없이 일선 담당자가 느끼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압박을 말하는 것이다. 질문지 응답에 나타난 서울시민이 기대하는 공공도서관 장서내용(표 7 참조)에 있어 학문 추구를 돕는 책이 전 응답자중 51.5퍼센트로 가장 높은 것을 보아도 공공도서관의 “연구”목적이 지역사회 요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4. 公共圖書館 目的의 優先順位

어떤 사회기관이든 그것이 성취하고 싶은 모든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공공도서관도 자료, 인력, 시설, 지역사회의 이해, 예산, 기타 제한조건으로 동시에 모든 목적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지역사회의 요구의 강도를 수시 점검하여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불급한 것은 차기로 미루고 시급한 것만 골라 당면 목표로 설

provided with library and informational service adequate to their needs...)

59) 한국도서관 통계, 1973, p. 10.

60) Ibid., 1973, p. 11.

정한 다음 집약적으로 성취 노력을 경주함이 옳을 것이다. 또 목적의 우선순위는 시대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목적 개정을 지향한 본 연구에 현 시점에서 기존 목적의 우선순위 고찰을 포함한 所以이다. 질문지를 통해 기존 공공도서관 목적에 관련된 네 부분의 자료를 제시하고 구입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표 13과 같은 응답을 얻었다.

<표 13> 이용자가 바라는 공공도서관 자료의 부문별 구입 우선순위

문항	자료부문	구입 우선 순위							
		1		2		3		4	
		수	%	수	%	수	%	수	%
귀하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바라는 도서관의 부문별 구입 우선순위는? (우선순위에 따라 1, 2, 3, 4로 표시하시오)	오락서	12	7.8	18	11.8	47	30.7	76	49.7
	교양서	33	21.6	79	51.6	30	19.6	11	7.2
	정보·참고서	26	17.0	18	11.8	53	34.9	56	36.3
	학술·연구서	82	53.6	38	24.8	23	14.8	10	6.8

표 13은 이용자가 바라는 공공도서관 목적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오락서의 구입 우선순위는 4에 집중되어 있고(49, 7%), 교양서는 우선순위 2(51.6%)에, (정보·참고서)는 비슷한 비율로 우선 순위 3(34.9%)과 우선순위 4(36.3%)에, 학술연구서는 우선순위 1(53.6%)에 각각 집중되어 있다. 표 13의 수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서울시민이 바라는 공공도서관 목적의 우선순위는 연구(학술·연구서), 교양(교양서), 조사(정보·참고서),⁶¹⁾ 오락(오락서)의 순이라 할 수 있다.

61) 표13에서 실제로는 오락서와 정보 참고서가 다 우선순위 4에 해당되고 우선순위 3이 비어있는 상태이나 오락서의 우선순위 4는 분명한 집중율을 보인데 비해, 정보 참고서의 경우는 집중부가 우선순위 3과 4에 거의 같은 비율로 분산되어 있는 점(그차는 3명, 1.4%)과, 공공도서관의 참고조사 봉사라는 그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도 일반시민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질문지 응답에 있어 실제보다 낮은 우선순위로 표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1.4퍼센트의 數值差에도 불구하고 정보참고서의 구입 우선순위를 3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 순위는 前記한 표 7(이용자가 바라는 공공도서관 장서내용)과 표 9(이용자가 바라는 공공도서관)에 대조할 때 부분적으로 해석상 수정할 필요가 생긴다. 표 13에서 1위인 연구목적이 표 7에서도 1위이나 표 3에서는 3위이고, 표 13에서 3위인 조사목적이 표 7과 표 9에서는 1위이다. 세 표를 통해 일치된 순위는 2위인 교양목적과 末位인 레크리에이션 목적이다. 그러므로 연구목적과 조사목적을 표 비율에 따라 동물 계 1위로 보면 현 시점에서의 공공도서관 목적의 우선순위는 표 14와 같이 된다.

<표 14> 기존 공공도서관 목적의 우선순위

우 선 순 위	목 적
1	조사 및 연구
2	교 양
3	레크리에이션

5. 結 論

공공도서관의 모든 봉사활동은 올바른 목적이 설정되어야 의미가 생길 수 있다. 올바른 공공도서관의 목적 설정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기초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서관법중의 공공도서관 목적은 우리사회의 요구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식된 것이므로, 그 목적 아래서는 우리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도서관 활동의 전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기존(이식된) 공공도서관 목적을 우리사회의 요구에 비추어 비판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 여기 장차 도서관법 개정시의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가. 공공도서관이 공중에게 교양서를 읽혀 지역사회 의 교양 수준을 높히려는 이상은 주목적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ㄱ.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ㄴ. 지역사회의 요구가 미미하다.
- ㄷ. 소독향상, 대량출판등 현대의 사회적 산업적 요인으로 도서관 밖에서의 교양독서가 일반화 되어있다.
- 나. 공공도서관이 공중에게 레크리에이션 자료를 제공함은 지역사회
의 요구에 비추어 무의미한 일이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무의미하다
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 ㄱ. 독서취미가 오락서에서 점차 교양서어로 향상한다는 가설의 증
거가 박약하다.
- ㄴ. 공중을 무해한 오락독서에 묶어 사회악을 줄일 수 있다는 종래
의 주장은 다양한 오락수단(특히 텔레비전)의 출현으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 다. 공공도서관이 공중에게 정보·참고자료를 제공하여 조사에 기여
한다는 목적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일치하나 자료 봉사면에 있어서
아직도 이 “조사목적은 새로운 것”이어서 점증하는 정보화시대의
수요에 맞도록 참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라. 공공도서관의 존재 의의가 지역사회의 현실적 요구 충족에 있는
이상, 전 이용자의 92.2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중시하
여 이들에게 보다 적절한 봉사방법을 개발하고, 환상적 대상인 사
회 각 부문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면의 제기능은 축소되어
야 한다.
- 마. 도서관법 개정에 있어서 또는 현행 도서관법 아래서의 봉사활
동에 있어서, 공공도서관 목적의 우선순위를 참작해야 한다. 그 우
선순위는 조사 및 연구목적이 제1위, 교양목적이 제2위, 제3위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이다.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항에 모두 표시시오)

- 1) 시간이 없다.
- 2) 도서관이 멀리 떨어져 있다.
- 3) 도서관에 갈 필요가 안 생긴다.
- 4)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방법을 잘 모른다.
- 5) 바라는 책이 없을 것 같아서.
- 6) 도서관에 갈 필요를 다른데서 충족시킨다.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위의 6)에 표한 사람만 적으십시오] 그 “다른데”란? (해당 항에 모두 표시시오)

- 1) 텔레비전.
- 2) 라디오.
- 3) 신문.
- 4) 잡지.
- 5) 서점(도서 구입)
- 6) 학교도서관, 직장도서관등 다른 도서관.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이름과 그 대략 위치를 기억나는대로 적어 주십시오.

예 : 영등포..... 도서관(영등포, 노량진)

- 1) 도서관(_____)
- 2) 도서관(_____)
- 3) 도서관(_____)
- 4) 도서관(_____)

5. 오늘로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모두 없어진다면 귀하는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만 표시시오)

- 1) 큰 어려움을 겪는다.

- 2) 어려움을 겪는다.
- 3)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 4) 세금 낭비의 종결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6. 귀하의 생각으로는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하나만 표시시오)

- 1) 현재보다 많아야 한다.
- 2) 현재 수로 족하다.
- 3) 현재 수보다 적어도 좋다.

7. 귀하가 과거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 또는 앞으로 빌려 읽고 싶은 책은? (해당 항에 모두 표시시오)

- 1) 소설, 전기등 재미로 읽는 책.
- 2) 사상서, 종교서등 교양을 위한 책.
- 3) 어떤 일을 하다 모를 일이 생겨날 때 그 해답을 주는 즉 정보를 제공하는 책.
- 4) 개인적 학문 추구를 돕는 책.
- 5) 기타(구체적으로:)

※ 이하 “교양”이라 함은 마음과 영혼을 닦아 문화인의 품성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8. 귀하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바라는 자료의 부분별 구입 우선 순위는? (우선 순위에 따라 1,2,3,4로 표시시오)

- 1) 소설, 전기등 재미로 읽는 책.
- 2) 사상서, 종교서등 교양을 위한 책.
- 3) 어떤 일을 하다 모를 일이 생겨날 때 그 해답을 주는 즉 정보를 제공하는 책.
- 4) 개인적 학문추구를 돕는 책.

9. 귀하의 견해로 공공도서관에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책은? (해당 항에 모두 표시시오)

- 1) 소설, 전기등 재미로 읽는 책.
- 2) 사상서, 종교서등 교양을 위한 책.
- 3) 어떤 일을하다 모를일이 생겨날 때 그 해답을 주는 즉 정보를 제공하는 책.
- 4) 개인적 학문추구를 돕는 책.

10. 귀하는 공공도서관이 다음의 어느 것이기를 바라십니까? (해당항에 모두 표시시오)

- 1) 재미있는 책을 읽으며 여가를 즐겁게 보내는 곳.
- 2) 유익한 책을 읽으며 교양을 쌓는 곳.
- 3) 어떤 일을하다 모를 일이 생겨날 때 그 해답을 찾으러 가는 곳.
- 4) 개인적 연구(학교공부 포함)에 필요한 책을 빌리는 곳.

※ 어떤 이들은 도서관에서 얻는 것파 텔레비전에서 얻는 것에 유사한 것들이 있어 그 중복을 폐해야한다는 의견을 말합니다. 예컨대 도서관에서 국내외 시사문제를 읽을 수 있듯이 텔레비전등 다른 전달기관을 통해서도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복 중에서 귀하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11. 귀하는 자신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해당항에 모두 표시시오)

- 1) 라디오·텔레비전 교양프로그램을 시청한다.
- 2) 신문을 구독한다.
- 3) 교양잡지를 구독한다.
- 4) 공공도서관 책을 빌려 읽는다.
- 5) 강연회등에 참석한다.
- 6) 기타(구체적으로:)

12. 귀하는 자신의 교양을 위해 텔레비전 교양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로

만족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표시시오)

- 1) 매우 만족하다.
- 2) 만족하다.
- 3) 만족하다 할 수는 없지만 현 생활구조상 어쩔 수 없으므로 만족하려고 한다.
- 4) 만족스럽지 않다. 고로 다른 방법으로도 교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5) 교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3. 명작소설, 전기등이 극화되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귀하는: (하나만 표시시오)

- 1)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만족하고 원작을 읽을 생각은 없어진다.
- 2) 텔레비전 극을 시청하는 것과 원작을 읽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원작을 언젠가 읽으려는 마음은 변치않는다.
- 3) 원작을 읽고 싶지만 최근에는 시간 사정 등때문에 텔레비전 극을 본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14. 한 마디로 말해 텔레비전과 도서 양자 중 현재 어느 것이 귀하에게 있어 더 유용한 실제적 교양자료源입니까?

- 1) 텔레비전
- 2) 도서

※ 한가한 때를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오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읽는것도 목적에따라 오락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책읽는 오락"이 텔레비전 때문에 위축되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15. 귀하가 가지는 최근의 주요 오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항에 모두 표시시오)

- 1)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2)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
 3) 신문, 잡지 구독.
 4) 책을 사거나 친구에게서 빌려 읽는 것.
 5) 도서관 책을 빌려 읽는 것.
 6) 친구와 어울리는 것.
 7) 기타(구체적으로:)
16. 귀하는 자신의 오락으로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로 만족하-
 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표하시오)
- 1) 매우 만족하다.
 2) 만족하다.
 3) 만족하다 할 수 없지만 현 생활구조상 어쩔 수 없-
 으므로 만족하려고 한다.
 4) 만족스럽지 않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오락도 추-
 구한다.
 5) 오락가치가 없다.
17. 귀하는 한가한 때 재미있게 지낼 목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
 려 본적이 있습니까? (하나만 표하시오)
- 1) 있다.
 2) 없다.
 3) 생각은 있었지만 시간, 거리 등 사정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18. 귀하에게 있어 도서관은(하나만 표하시오)
- 1) 중요한 오락기관이다.
 2) 한 오락기관이라 할 수 있다.
 3) 오락기관이 아니다.
19. 귀하는 텔레비전이 있는 이상 도서관의 오락독서—재미로 책을 읽!

는 일—는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하나만 표시시오)

- 1) 필요 없다고 본다.
- 2) 같은 내용이라도 텔레비전 시청과 독서는 별미이므로 텔레비전이 아무리 보급되더라도 도서관에 서의 오락독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 3) 텔레비전이 있으면 오락독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 4) 다른 의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20. 사회오락기관으로 텔레비전과 도서관중 어느 것이 실제로 귀하 자신에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표시시오)

- 1) 텔레비전
- 2) 도서관
- 3) 양자가 꼭 같이 유용하다.

21. 귀하는 텔레비전을 가진 후로 오락독서와 교양독서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표시시오)

- 1) 줄었다.
- 2) 줄지 않았다.
- 3) 잘 모르겠다.

22. [위에서 “줄었다”고 한 사람만 적으십시오] 귀하는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에 모두 표시시오)

- 1) 텔레비전을 통해서 얻는 오락이나 교양이 독서를 통해서 얻는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2) 텔레비전에 여가를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 3) 잘 모르겠다.

23. 귀하는 어떤 교양도서를 읽고 싶을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그 책을 구하십니까? (하나만 표시시오)

- 1) 서점에서 산다.

- _____ 2) 공공도서관에서 빌린다.
- _____ 3) 친구에게서 빌린다.
- _____ 4) 학교나 직장도서관등 공공도서관 아닌 도서관에서 빌린다.
- _____ 5) 위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구한다. (구체적으로: _____)

24. 귀하의 공공도서관 이용빈도는 이전(10년, 20년 또는 30년전)에 비해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표하십시오)

- _____ 1) 줄어들었다.
- _____ 2) 늘어났다.
- _____ 3) 마찬가지다.
- _____ 4) 잘 모르겠다.

25. 귀하가 이용자 입장에서 평소 공공도서관 봉사에 대해 느끼는 불만은? (해당 항에 모두 표하십시오)

- _____ 1) 거리가 먼것.
- _____ 2) 열람석이 불편한 것.
- _____ 3) 대출절차가 까다로운 것.
- _____ 4) 소액이지만 돈을 받는것.
- _____ 5) 기타(구체적으로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 성 진

<부록 2>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유별 열람통계

국립중앙도서관 유별 열람통계

연도 \ 유별	전서 잡지	철학 총서	역사 교과지	사문 리문	어학 미학	미술 예교	사회 교육	경제 법제	의학 공학	공업 학업	산교 업통
1965	47,933	7,740	24,534	66,034	5,456	20,167	31,925	11,637	10,138	2,305	
1966 ¹⁾	6,792	4,826	8,073	38,587	2,632	20,573	8,940	10,193	6,455	2,812	
1967	60,018	9,160	8,662	58,333	2,907	20,581	14,797	11,674	6,802	4,409	
1968	87,578	10,501	10,583	57,556	4,873	26,181	15,531	10,692	7,749	6,566	
1969	53,208	14,781	16,697	51,728	5,947	33,587	18,613	11,870	11,330	9,300	
1970	77,846	16,101	16,333	54,421	5,410	30,617	19,056	13,312	10,220	8,066	
1971	54,244	14,236	32,999	77,984	5,969	29,426	27,320	14,573	14,049	10,019	
1972	39,073	20,379	24,982	93,852	7,787	37,419	36,622	18,340	19,236	10,623	
1973	116,844	19,496	26,037	85,797	13,659	40,724	49,171	21,488	18,942	18,196	

※ 국립중앙도서관 보존 통계에 의함. 이 통계는 부분적으로 “도서관”지 (매년 1월호 또는 2월호)에 게재됨.

1) 1966. 7. 1~12. 31 기간의 통계.

종로도서관 유별 열람통계

연도 \ 유별	총류	철학	종교	사과 과학	사회 과학	순수 수과	기과 수과	예술	어학	문학	역사
1963	4,509	2,257	213	8,740	4,454	2,591	1,203	10,568	18,822	3,552	
1964	5,125	2,083	188	14,378	4,180	3,136	1,484	12,088	21,306	3,674	
1965	7,030	1,668	737	11,898	4,257	3,359	1,562	10,370	15,538	3,850	
1966	1,455	4,379	783	12,274	9,224	4,391	2,816	10,075	36,470	6,176	
1967 ¹⁾	940	1,988	309	4,672	3,641	2,245	1,574	4,285	26,852	2,915	
1968 ²⁾	505	1,275	392	3,759	1,851	1,559	1,204	1,983	26,967	2,038	
1969	1,772	4,283	2,799	13,354	8,484	7,207	5,323	10,145	72,131	8,085	
1970	2,025	3,831	2,824	14,591	10,491	9,082	5,805	14,036	101,951	7,245	
1971	2,489	4,556	2,079	13,983	7,715	5,724	6,127	6,741	112,298	7,393	
1972 ³⁾	1,044	5,976	1,233	10,625	4,587	4,525	2,557	3,277	74,543	4,696	
1973	1,300	7,544	1,757	14,486	5,376	6,932	3,394	4,299	79,327	7,630	

※ 종로도서관 보존 통계에 의함.

1) 1967. 1. 1~8. 31 기간의 통계.

2) 1968. 8. 21~12. 31 기간의 통계.

3) 폐가 서고에서의 대출통계.

남산도서관 유별 열람통계

연도	유별																			
	총	류	철	학	종	교	사	회	순	수	기	술	예	술	어	학	문	학	역	사
1965	3,814	6,415	800	20,163	13,965	8,653	4,427	18,073	94,529	8,007										
1966	3,317	5,642	622	22,888	14,100	7,365	2,731	15,855	117,169	9,034										
1967	4,873	8,229	1,646	12,327	7,855	7,259	5,063	11,039	122,587	6,244										
1968	4,819	8,936	1,846	16,898	9,481	10,294	4,878	7,943	143,188	12,622										
1969	3,105	5,470	1,848	11,413	12,778	7,084	3,113	6,089	155,867	4,531										
1970	5,630	6,081	2,434	15,651	11,579	12,841	3,994	6,992	166,786	5,064										
1971																				
1972	5,104	8,745	2,451	16,681	8,935	8,522	3,541	5,720	217,265	7,846										
1973	8,875	11,492	3,807	21,337	13,321	11,356	5,276	10,905	172,607	13,338										

※ 남산도서관 보존 통계에 의함.

등대문도서관 유별 열람통계

연도	유별																			
	총	류	철	학	종	교	사	회	순	수	기	술	예	술	어	학	문	학	역	사
1971	2,941	4,621	2,978	9,906	2,687	1,995	962	9,508	36,838	2,474										
1972	2,838	3,862	810	9,316	3,258	2,761	1,451	2,599	50,202	4,404										
1973	31,258	7,084	2,531	34,317	20,968	5,950	11,778	4,697	269,657	46,366										

※ 등대문도서관 보존 통계에 의함. 부분적으로 "등대문도서관보"에 게재됨.

<부록 3> 서울시내 텔레비전 방송국 부문별 편성비율

KBS 부문별 편성비율(週間)

부	문	연 도		
		1970. 10 ¹⁾	1971. 10 ²⁾	1972. 9 ³⁾
보	도	14.0%	17.7%	19.8%
교	양	38.6	38.9	43.8
연	예·오	43.6	41.7	34.2
기	타	3.8	1.7	2.2
계		100.0	100.0	100.0

1) 2) 韓國放送年鑑, 1972, p. 179.

3) _____, 1973. p. 232.

TBC 부문별 편성비율(週間)

부 문 \ 연 도	1970. 8 ¹⁾	1971. 8 ²⁾	1972. 11 ³⁾
보 도	9.1%	9.9%	13.5%
교 양	23.4	24.2	21.9
연 예·오 락	55.9	57.6	57.7
기 타	11.6	8.3	6.9
계	100.0	100.0	100.0

1) 2) 韓國放送年鑑, 1972, p. 326.

3) _____, 1973, p. 437.

MBC 부문별 편성비율(週間)

부 문 \ 연 도	1970. 8 ¹⁾	1971. 8 ²⁾	1972. 10 ³⁾
보 도	10.6%	8.1%	15.9%
교 양	30.8	21.9	15.5
연 예·오 락	50.4	62.4	61.5
기 타	8.2	7.6	7.1
계	100.0	100.0	100.0

1) 2) 韓國放送年鑑, 1972, p. 260.

3) _____, 1973, p. 348.

<부록 4> 출판물 종별 발행부수

연도 \ 종별	철 학	중 교	예 술	문 학	역 사
1965	63,100	671,170	166,350	1,173,100	75,500
1966	87,700	860,050	198,100	828,250	131,450
1967	56,400	596,750	142,730	778,150	168,200
1968	80,082	646,650	192,400	912,445	123,955
1969	128,200	843,900	214,600	1,086,137	91,510
1970	186,800	510,050	247,700	891,796	117,353
1971	211,980	734,920	395,450	1,006,402	352,485

韓國出版年鑑, 1966-72.

<부록 5> 전국 텔레비전 보급상황

연 도	보급상황	보 급 대 수	1961년도 기준
1961		20,000	—
1962		30,000	1.5배
1963		31,701	1.6배
1964		32,402	1.6배
1965		34,707	1.7배
1966		46,684	2.2배
1967		73,224	3.6배
1968		118,578	5.9배
1969		223,695	11.2배
1970		379,564	19.0배
1971		616,392	30.8배
1972		954,542(서울509,229)	45.3배

※ 韓國放送年鑑, 1972, p.76.

<부록 6> 공공도서관 봉사에 대한 불만 표시

1. 거리가 먼 것(98명, 52.7%)
2. 이용 절차가 까다로운 것(75명, 45.0%)
3. 열람석이 불편한 것(37명, 22.2%)
4. 소액이지만 돈을 받는 것(7명, 4.2%)
5. 장서(특히 전문서적, 참고서적)가 빈약한 것.
6. 체계적 장서구성이 되지 않은 것.
7. 신간 구입이 늦는 것.
8. 입관시 때때로 대기하는 것.
9. 입관후 열람석이 부족하여 때때로 빈 자리 나기를 기다리는 것.
10. 열람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입시준비를 하는 학생이 많아 오락, 교양독서는 불가능하므로 학생열람실의 별도 설치를 요망함).
11. 사서의 질이 낮아 만족한 질문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12. 매스컴을 통한 도서관 봉사 안내가 있었으면.

A Critical Study on Validity of the Present Purpose of the Public Library Defined in the Korean Library Act

By Sung-Jin Choi*

The public library may perform a social good only when its objectives are adequate to the community's needs. The present purpose of the public library in the Korean Library Act has no direct concern for our social needs from its very beginning because it was not created in response to our social needs but transplanted from American principles. It is, therefore, difficult to expect socially useful output of our public library programs under the present purpose which may be inadequate to our social tradition and needs.

This study purposes to examine validity of the present purpose of the public library in the Korean Library Act, in the light of our community needs and our own library tradition.

The methods employ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re (1) to survey needs of the library frequenters through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with the public librarians in Seoul, (2) to gather the statistical data relevant to, and supporting, the hypothesis, and (3) to compare our social background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of which the American purpose, a model for our present purpose, came out.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A. The idea to induce people to pull themselves upward by providing for all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ccess to the world's best books shelved in the public library should be abandoned. Th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

reasons are (1) that the idea is alien in our public library tradition, (2) that little demand of the community goes with the idea, and (3) that reading outside the library has come into wide practice, thanks to recent increase in individual income and that in publications.

B. That the public library maintains fiction and other recreational reading materials is meaningless in the light of the community needs. These are the two explanations supporting the thesis.

(1) The "uplift" theory has proved inoperative and people apparently do not progress from light fiction to more respectable fare.

(2) The conviction that fiction and other recreational reading materials keep the middling classes from the "vicious" entertainments maintaining order in the community by giving them a harmless source of recreation has lost its significance as the modern society provides a number of choices in recreation: television is an obvious example.

C.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al needs of the community has radically changed, so radically as to require substantial changes in the outlook, collections, and services of the public library, which is slow in adopting itself to the new social surroundings in Korea.

D. 92.2 per cent of the present frequenters of the public library ar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Since the library is to meet the existing community needs it should turn its attention to the student group, and develop the means to serve it better, not the theoretical group of specialists who do not come to the public library.

E. In revision of the purpose of the public library, priority of each objective should be given. The priorities in the last analysis are research and information, culture, recreation in that order.